

증권업

BUY(Overweight)

주식시장 가격변동폭 확대로 거래대금 증가 기대

내년부터 주식시장 가격변동폭 확대

주식시장 가격변동폭 15%에서 30% 확대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주식시장 하루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재 $\pm 15\%$ 에서 $\pm 30\%$ 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내년부터 코스피 시장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후 코스닥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확대 중간단계로 $\pm 20\%$, $\pm 25\%$ 를 우선 도입한 후 $\pm 30\%$ 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성 완화장치 함께 도입 다만,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등락폭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동적 및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가 함께 도입된다.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란 개별종목의 장중 주가가 특정호가에 의해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 (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개정이 완료되었으며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발동가격률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가격제한폭이 없는 대신 위와 같은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과거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됨

코스피시장 1995년 6%에서 1998년 15%로 확대 과거 증시 가격제한폭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1995년 4월에 가격제한폭 6%를 도입한 이후 1996년 11월 8%, 1997년 3월 12%, 1998년 12월 15%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코스닥 시장은 1996년 11월 8% 도입 이후 1998년 5월 12%, 2005년 3월 15%로 가격제한폭이 확대되었다 [표1].

동기간 개인거래비중 18.1%p 상승 1995년 4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코스피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6%에서 15%까지 2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동기간 중 개인거래의 비중이 18.1%p 상승하였다[그림3]. 이 기간 중에는 코스피 지수 및 주가 변동성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제한폭 확대가 개인거래 비중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할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99년 코스닥 버블 등 다른 요소가 주식시장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쳐 관련 제도 도입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98년~02년 최대 수준의 회전율 실현 코스피 시장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주가 변동성 및 회전율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 이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최대 수준의 주가 변동성 및 회전율을 실현하였다[그림2, 4].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능해지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거래가 증가하면서 변동성 및 회전율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 영향 기대되나 과거 대비 영향은 적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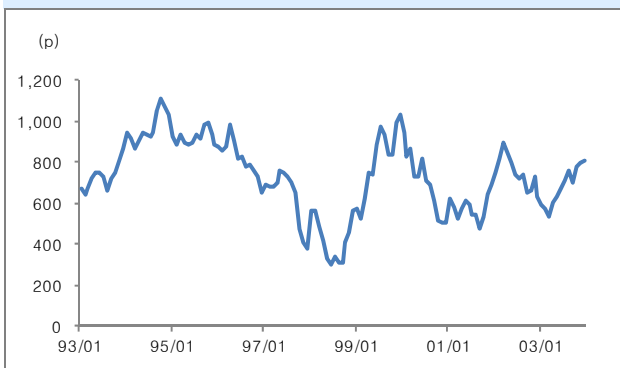
브로커리지 비중 및 개인시장 점유율 높은 키움증권 수혜 예상 이번 가격변동폭 확대에도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져 개인거래 비중 및 회전율이 상승하여 거래대금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증권업에 긍정적이며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 및 개인 시장 점유율이 높은 키움증권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 비중 및 주식시장의 개인거래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관련 영향은 과거 대비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증시 가격제한폭

구분	코스피	구분	코스닥
1995년 4월	6%	1996년 11월	8%
1996년 11월	8%	1998년 5월	12%
1998년 3월	12%	2005년 3월	15%
1998년 12월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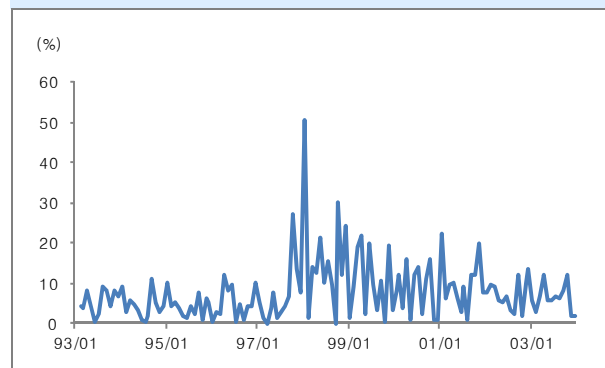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그림 1] 코스피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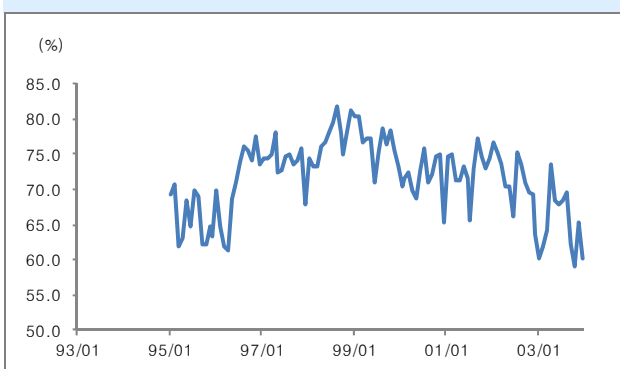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그림 2] 코스피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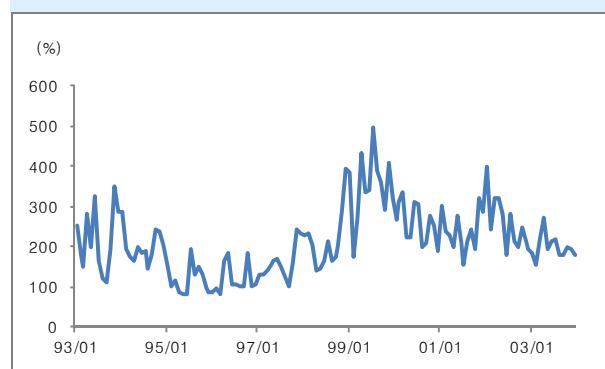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그림 3] 코스피 시장 개인거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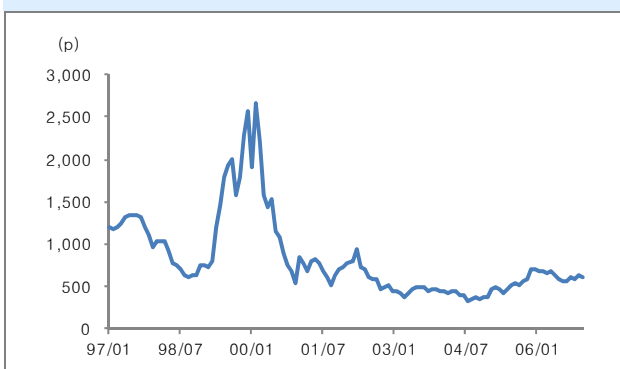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그림 4] 코스피 시장 회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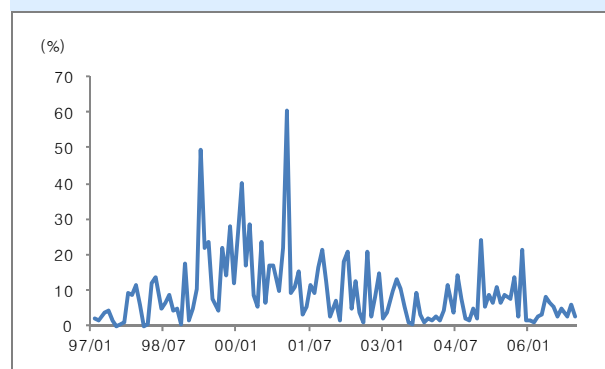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그림 5] 코스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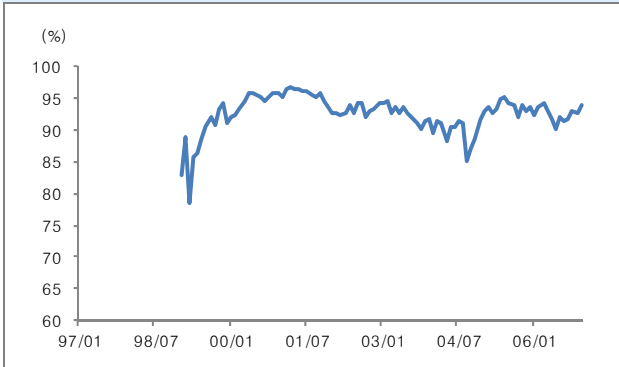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그림 6] 코스닥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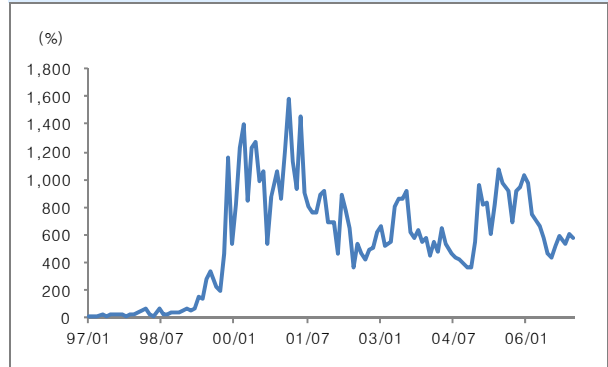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그림 7] 코스닥 시장 개인거래 비중



자료: Dataguide

[그림 8] 코스닥 시장 회전율



자료: Dataguide

Compliance Notice

1.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작성되었습니다.
2. 당사 및 본인은 이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이 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이 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당사 및 본인은 이 자료를 사전에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4.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는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 또는 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하여 인수관계·계약의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관계 또는 인수·합병업무 수행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보유 등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작성자 : 김고은]

기업분석		산업분석	
분류	적용기준	분류	적용기준
BUY(매수)	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20%이상 상승 여력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 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상승 예상
HOLD(중립)	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20%~20% 등락	Neutral(중립)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 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예상
SELL(매도)	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20%이상 하락 가능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6개월간 업종지수 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하회 예상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6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에 대한 후속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